

#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 분석 -서울시 요양원 입소노인을 중심으로-

김일신<sup>1\*</sup>, 조성제<sup>1</sup>  
<sup>1</sup>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 A Study on key attributes to congenital disease factors regarding the patients of the four most-common serious chronic illnesses and their relatives in the light of Myeongrihak -centering on the elderly in Seoul nursing homes-

Il-Sin Kim<sup>1\*</sup> and Sung-Je Cho<sup>1</sup>

<sup>1</sup>Department of Education at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기간은 2013년 3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각각 1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질환특성요인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선천성질환 중에서 뇌혈관질환이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혈연 관계자의 건강관련 특성요인에 따른 4대 중증질환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시사점은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혈연 관계자의 질병예측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key attributes to congenital disease factors regarding the patients of the four most-common serious chronic illnesses and their relatives in the light of Myeongrihak.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15 to July 31, 2013, of 147 elderly people with the four most-common serious chronic illnesses admitted to nursing homes located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Kai-square tests by use of SPSS/WIN 18.0. The analysis found that the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had very similar disease factors,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presented the strongest correlations. The subjects also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health factors of their relatives. As this study found that meaningful correlations regarding congenital diseases between patients of the four most-common serious chronic illnesses and their relatives in the light of Myeongrihak, this will serve as basic data to predicts health conditions of families and relatives.

Key Words : A congenital disease, A serious case, Saju, Myeongrihak, Nursing Facilitie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은 의료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장수는 하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등[1]에 의하면, 노인성질환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인 암질환은 44만 명(2002년)에서 90만 명(2011년)으

\*Corresponding Author : Il-Sin Kim(Dongbang Graduate Univ.)

Tel: +82-11-9088-5959 email: 0885959@naver.com

Received October 2, 2013

Revised November 1, 2013

Accepted November 7, 2013

로 늘었고,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107만 명(2002년)에서 189만 명(2011년)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심장질환인 고혈압은 2002년 273만 명에서 2011년 532만 명으로 약 2배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노인성질환인 4대 중증질환자가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통계청[2]자료에 의하면, 사망원인 순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순으로 전체 4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성질환 중에서 4대 중증질환자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만성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현지[3]는 가족부양자가 부양부담과 경제수준은 부양자의 건강관련행동변화에 직접적 효과 뿐 만아니라 부양부담과 부양만족감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후 부양가족자의 부양에 대한 만족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김용희 등[4]은 가족부양가족의 스트레스, 생활만족도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노인 및 부양가족 두 집단의 요양보호사 관련 변인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노인들이 부양가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만성노인질환 선행연구에서는 만성질환 노인을 돌보는 가족부양자에 대해서 연구는 하였으나, 이미 선천적으로 타고난 질환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그래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천성질환에 관한 연구는 크게 체질론과 통계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체질론에서는 류시옥[5]은 명리오행체질을 이용한 체질분류와 건강관리가 실생활에 효용성이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는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김재성[6]은 명리체질과 황제내경체질의 상관성에서는 접근 방법이 상반될 뿐이지 물질과 에너지의 합일체인 기에 대한 체질적 해석은 같다고 파악되었다. 그 결과 체질적인 면에서도 명리학과 한의학의 오행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사례에서는 정인순[7]은 사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 중 중풍질환의 발현시기를 파악하였다. 또한 정창근[8]은 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병명과 명리학적인 선천성질환의 상관관계가 다소 일치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류시옥[5]의 연구에서는 선천성 오행체질과 실제 체질이 일치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는 20대는 43.9%, 30~60대는 약67.6%가 일치하였다. 그래서 김일신[9]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4대 중증질환자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에 관한 연구를 하여 유사성이 약 80% 일치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문제점은 선천성질환자의 본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관

계자의 질환이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없다. 그 이유는 중증질환자를 둔 가족의 질병이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을 금기시 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중증질환자의 당사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4대 중증질환자의 당사자와 혈연 관계자의 질환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내용은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건강관련 특성요인,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 조사 및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문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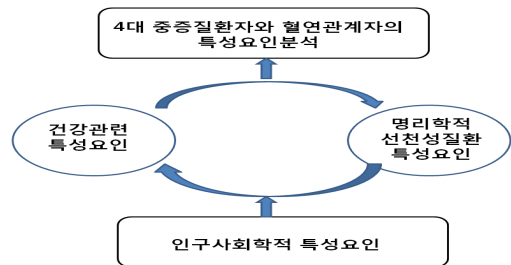
둘째, 건강관련 특성요인은 어떠한가?

셋째,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은 어떠한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관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초 자료로 건강관련요인과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에 대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Design

###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Y구에 소재하는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각각 147명으로 대상자의 판정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이고,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로 임의 표집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의 산출근거는 Cohen이 제시한 표를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를 .35로 가정하고 power를 .70으로 하면 한 집단의 최소표본크기가 98로 산출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 수인 147명은 단일군 집단의 표본크기로 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종교, 결혼상태 등을 측정하였다. 4대 중증질환자의 연령은 “65-69세군”, “70-74세군”, “75-79세군”, “80 이상 군”으로 하였고, 혈연 관계자의 연령은 “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기타로 구분하였고, 결혼 상태는 기혼과 미혼 외에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분류하였다.

#### 2.3.2 건강관련 특성요인

조사도구는 지역사회건강조사[8]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음주상태는 주 1회부터 주 3회까지 3개 항목과 “거의 매일”, “전혀 안한다”로 5개 항목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또한 흡연상태는 “피우지 않는다”, 1일 “반갑 이하”, “한갑 이상”, “두 갑 이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시간은 “일 3시간 이상”, “일 1시간 이상”, “주 10시간 이상”,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안한다”로 구성하여 6개 답변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2.3.3 병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

조사도구는 정창근[9]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4대 중증질환자의 현재 질환은 4대 중증질환과 기타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혈연 관계자는 현재 건강상태가 “안 좋은 질환”과 건강상태가 “이상 없다”로 구분하였다.

#### 2.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4대 중증질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과 생년월일시를 이용한 사주에 의한 중증질환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스케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둘째, 혈연 관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과 사주에 의한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스케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셋째,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사주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스케어검정( $\chi^2$ )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 3.1.1 4대 중증질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4대 중증질환자의 생년월일시를 이용한 사주에 의한 현재 앓고 있는 중증질환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대 중증질환자의 뇌혈관 질환은 목이 78.1%, 금과 수는 45.8%로 가장 높았으며 심장질환은 화가 44%로 많았고, 기타질환은 토가 60.0%로 가장 높았다. 4대 중증질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에 의한 중증질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ifferences in Patients with four most-common serious illnesses by Demographics

Classification	Cancer		Cardiac disorder		Cerebrovascular disease		Others		Total		$\chi^2$ (p)	
	N	%	N	%	N	%	N	%	N	%		
Sex	Male	8	20.5	6	15.4	19	48.7	6	15.4	39	100.0	5.858 (.119)
	Female	15	13.9	7	6.5	53	49.1	33	30.6	108	100.0	
Age	Under 79	12	20.3	7	11.9	27	45.8	13	22.0	59	100.0	3.364 (.339)
	Over 80	11	12.5	6	6.8	45	51.1	26	29.5	88	100.0	
Saju of earth	wood	9	12.3	0	.0	57	78.1	7	9.6	73	100.0	94.538 *** (.000)
	fire	5	20.0	11	44.0	1	4.0	8	32.0	25	100.0	
Patients with four most-common serious illnesses	metal/water	3	12.5	1	4.2	11	45.8	9	37.5	24	100.0	94.538 *** (.000)
	earth	6	24.0	1	4.0	3	12.0	15	60.0	25	100.0	
Total		23	15.6	13	8.8	72	49.0	39	26.5	147	100.0	

\*\*\* p<.001

#### 3.1.2 혈연 관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오행 중 목과 연관이 있는 ‘안질, 간질, 빈혈, 기미, 근육경련, 담석통증, 전신불수, 경기’를 앓고 있는 혈연 관계자는 74.0%로 매우 높았고, 화와 연관이 있는 ‘호흡곤란, 동맥경화, 저혈압, 고혈압, 협심증, 심장판막증’이 85.7%로 매우 높았으며, 토와 연관이 있는 ‘위염, 위경련, 소화불량, 위암, 위산과다, 복통, 신경성질환’이 69.0%로 매우 높았다. 그리고 금/수는 ‘기타’질환이 58.3%로 매우 높았다. 혈연 관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에 의한 선천성질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ifferences in Congenital Diseases of Relatives by Demographics

Classification	Eye Disease, Epilepsy, Anemia, freckled, Crick, Gallstone pain, total paralysis, convulsion		dyspnea, hardening of arteries, low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 valvular disease		gastritis, gastrospasm, aepsia, gastric cancer, hyperchylia, abdominalgia, neurogenic disease		Others nothing		Total	$\chi^2$ (p)		
	N	%	N	%	N	%	N	%				
Saju of wood	54	74.0	2	2.7	5	6.8	1	1.4	11	15.1	73	100.0
of fire	0	.0	18	85.7	1	4.8	1	4.8	1	4.8	21	100.0
patie earth	1	3.4	3	10.3	20	69.0	3	10.3	2	6.9	29	100.0
nts' relat metal/water	2	8.3	1	4.2	5	20.8	14	58.3	2	8.3	24	100.0
Total	57	38.8	24	16.3	31	21.1	19	12.9	16	10.9	147	100.0

\*\*\* p<.001

### 3.2 건강관련 특성요인

혈연 관계자의 건강관련 특성요인이 4대 중증질환자에게 미치는 요인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음주와 흡연에 의한 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혈연관계의 건강상태가 “안질, 간질, 빈혈, 기미, 근육경련, 담석통증, 진신불수, 경기”를 앓고 있는 경우는 4대 중증질환자의 ‘뇌혈관질환’이 82.5%이며 건강한 경우는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혈연 관계자의 운동시간이 주 1회와 월 1회, 안한다는 4대 중증질환자의 ‘뇌혈관질환’으로 각각 64.3%, 57.7%, 5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혈연 관계자의 건강관련에 의한 4대 중증질환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atient's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Relatives Health Conditions

Classification	Cancer		Cardiac disorder		Cerebrovascular disease		Others		Total	$\chi^2$ (p)
	N	%	N	%	N	%	N	%		
Eye Disease, Epilepsy, Anemia, freckled, Crick, Gallstone pain, total Paralysis, convulsion	4	7.0	0	.0	47	82.5	6	10.5	57	100.0
Current health status										80.579
dyspnea, hardening of arteries, low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	5	20.8	9	37.5	3	12.5	7	29.2	24	100.0

\*\*\* p<.001

Classification	, angina, valvular disease		gastritis, gastrospasm, aepsia, gastric cancer, hyperchylia, abdominalgia, neurogenic disease		Others		Total	$\chi^2$ (p)		
	N	%	N	%	N	%				
Others	4	21.1	2	10.5	6	31.6	7	36.8	19	100.0
nothing	4	25.0	1	6.3	10	62.5	1	6.3	16	100.0
never	11	15.1	3	4.1	38	52.1	21	28.8	73	100.0
Drink one time a week	8	17.0	4	8.5	24	51.1	11	23.4	47	100.0
twice a week	4	14.8	6	22.2	10	37.0	7	25.9	27	100.0
smoking non-smoking	17	14.0	10	8.3	60	49.6	34	28.1	121	100.0
smoke	6	23.1	3	11.5	12	46.2	5	19.2	26	100.0
over 10 hours a week	6	11.5	9	17.3	18	34.6	19	36.5	52	100.0
time of one time exerc a week	2	7.1	1	3.6	18	64.3	7	25.0	28	100.0
use one time a month	6	23.1	2	7.7	15	57.7	3	11.5	26	100.0
never	9	22.0	1	2.4	21	51.2	10	24.4	41	100.0
Total	23	15.6	13	8.8	72	49.0	39	26.5	147	100.0

\* p<.05, \*\*\* p<.001

### 3.3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

#### 3.3.1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사주

4대 중증질환자의 사주가 목인 경우에 혈연 관계자의 사주는 ‘목’이 91.8%로 매우 높았고, 화인 경우는 84.0%로 매우 높았으며, 토의 경우는 88.0%로 매우 높았고, 금/수인 경우는 79.2%로 매우 높았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자의 사주와 혈연 관계자의 사주가 일치하는 비율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대 중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사주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Saju

Classification	Relatives Saju								Total	$\chi^2$ (p)
	wood		fire		earth		metal/water			
	N	%	N	%	N	%	N	%	N	%
wood	67	91.8	0	.0	4	5.5	2	2.7	73	100.0
fire	2	8.0	21	84.0	0	.0	2	8.0	25	100.0
earth	2	8.0	0	.0	22	88.0	1	4.0	25	100.0
met al/w ater	2	8.3	0	.0	3	12.5	19	79.2	24	100.0
Total	73	49.7	21	14.3	29	19.7	24	16.3	147	100.0

\*\*\* p<.001

### 3.3.2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

‘뇌혈관질환’인 경우는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사주가 목은 78.1%이며 금/수는 45.8%로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인 경우는 화가 4대 증증질환자는 44.0%이며 혈연 관계자는 47.6%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질환’인 경우는 토가 4대 증증질환자는 60.0%이며 혈연 관계자는 55.2%로 가장 높았다. 통계 결과는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이 갖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Myeongrihak Properties of Patients and their Relatives

Classification	Cancer		Cardiac disorder		Cerebrovascular disease		Others		Total		$\chi^2$ (p)
	N	%	N	%	N	%	N	%	N	%	
Patients	wood	9	12.3	0	.0	57	78.1	7	9.6	73	100.0
	fire	5	20.0	11	44.0	1	4.0	8	32.0	25	100.0
	earth	6	24.0	1	4.0	3	12.0	15	60.0	25	100.0
Saju	metal/water	3	12.5	1	4.2	11	45.8	9	37.5	24	100.0
	wood	8	11.0	1	1.4	57	78.1	7	9.6	73	100.0
Relatives	fire	3	14.3	10	47.6	0	.0	8	38.1	21	100.0
	earth	9	31.0	0	.0	4	13.8	16	55.2	29	100.0
	metal/water	3	12.5	2	8.3	11	45.8	8	33.3	24	100.0
Total	23	15.6	13	8.8	72	49.0	39	26.5	147	100.0	

\*\*\* p<.0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증증질환자의 명리에 의한 현재 앓고 있는 증증질환의 요인은 유의미하였다. 4대 증증질환자의 명리가 목은 ‘뇌혈관질환’이 78.1%로 가장 높았다. 이 의미는 류시욱[5]은 음양오행체질을 열 가지 체질로 구분하여 체질별 일차·불일치를 구분한 결과, 목음체질이 70%로 일차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둘째, 혈연 관계자의 건강관련요인이 4대 증증질환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혈연 관계자의 현재 건강상태는 목과 관련이 있는 뇌혈관질환이 82.5%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건강을 위한 혈연 관계자의 운동시간이 주 1회가 64.3%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백용운 등[10]에서 부양자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부양 스트레스영역 전반에 걸쳐 스트레스를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셋째,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목은 ‘뇌혈관질환’이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선행연구 정창근[8]에서는 33.3%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류시욱[5]에서 연령에 따른 명리학적 체질론은 연령이 높을수록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의미는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이 갖는 요인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의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이 갖는 요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요양시설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4대 증증질환자와 혈연 관계자에 대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 특성요인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생년월일시를 이용한 명리학적 선천성질환을 이용하여 사전에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혈연 관계자의 건강관련이 4대 증증질환자가 앓고 있는 증증질환의 요인과 유의미하게 파악되었다. 그래서 요양시설의 건강상태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활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명리학적 질병론과 거주지역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Joint document of Ministry of Healt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The four chronic illness, and so on. Medicare "Will" fulfil the promise 2013”, 2013.
- [2] Statistics Korea, “Cause of Death Statistics 2011”, 2011.
- [3] H. J. Lee, “Factors affecting family caregivers' health related behavior change to the elderly with chronic diseas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19, pp. 29-53, 2007
- [4] Y .H. Kim, J. S. An, “Stress, Life satisfaction and service satisfaction of elderly and elderly family using long-term care servic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7, pp. 161-190, 2012.
- [5] S. O. You,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Physical Constitutions of the Myeongri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Department of Naturopathic Science,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2009.
- [6] J. S. Kim, “A Study on Mingli Constitutional Medicine

-Focused on Interrelationship with Huan gdieneijingt zhi Theory-", Korea Institute of Taoist culture, Taoist Cultural Studies 34, 2011.4, 179-217 (39 pages), 2011.

- [7] I. S. Ju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 Pillars of Destiny and Disease", Major in Myungri Education the Department of Oriental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Cultural Studies Kyonggi University, 2006.
- [8] Community Health Survey, "2010 healthy positive happy positive community healthy investigation" [http://chs.cdc.go.kr/03\\_contents/contents\\_04.js](http://chs.cdc.go.kr/03_contents/contents_04.js) p, 2010.
- [9] C. K. Jeong, "A Study on the Predictability of Human Diseases Using the "Book of Changes", Major in Hospit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1996.
- [10] Y. W. Baik, T. S. Lee,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giving Stress on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5, No. 4 pp. 115-136, 2010.

[Fig. 1] Research Design

---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성결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IT융합, 복지상담,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정보보안

---

**김 일 신(Il-Sin Kim)**

[정회원]



- 2010년 3월 : 동방대학원 대학교 입학
- 2013년 8월 ~ 현재 : 동방대학원 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동양철학,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예측, 인상학, 성명학